

BAHAISM

바하이기원 126년 KOREAN BAHAI NEWS 서기 1969년



바하이 월보

<제 58 호>

5. 6월 합병호



<제6차 전국 대회 대의원 참석 전원 일동>

4월 27일 하지라에서

「만국 정의원」

세계의 바하이들에게

실로 사랑받는 교우들이여 ;

하느님 대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고질적이며, 불안하고 번민하는 인류사회에 대하여 생동하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대조야말로 우리 신앙의 안팎에서 일어난 지난해의 사건들에 의해서 격심해졌을 따름입니다. 낡은 질서의 붕괴 속에서 하느님의 대업은 그 장엄한 진로를 추구해 왔으니, 그 활동과 영향이 범위를 확장 시켰고, 그 행정 질서의 전진적 발전을 수행했습니다.

성지에서 만국정의원 선거를 위한 제2차 국제대회와 소집과 함께 시작된 한 해는 뚜렷한 대업활동을 본격화 했습니다.

가장 의미 깊고 멀리 뻗은 발전은 의심할 바 없이 11명의 대륙간 자문위원의 임명이었으니, 이는 대업 익성자 기구가 부름 받은 보호와 포교의 수입업무의 장래 확장을 내다보고 이 기구의 개발을 요청하는 9개년 계획을 완성 시켰습니다. 대업의 익성자들과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수행된 이 일은 단번에 이 기구의 활동을 단단히 공고화 했고, 익성자 자신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봉사의 범위는 대륙권을 넘어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 했으니, 이로써 이들 수호자의 피임자들을 분발케하는 헌신의 정신과 지혜와 사랑을 만국의 법들로 하여금 가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익성자들의 인도 아래 자문위원들이 높은 임무 위에 경박시킨 포범적인 성취방법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8월에 페라모에서 열린 제1차 대양 바하이 대회는 바하올라께서 여생을 보내신 위대한 감옥으로 가시기 전의 길인 지중해 항해를 기념했습니다. 이 대회의 참가자들은 대회 직후에 신앙의 쿠이블린으로 왔는데, 창시자의 사원에 경의를 표명하기 위함이었고, 오래 전에 예언된 주인의 성지 해변 도달을 그 정신적 취지에 깊이 인식하면서 기념했습니다.

이천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인 이 집회는 일백년전에 바하올라께서 오실적에 이 지구의 통치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지방 사람들에게서 비웃음당하였던 것과는 말할 수 없이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분 사명의 정복하는 힘이 이렇고, 왕중에 왕의 실패없는 기운이 이려합니다. 이와같은 사명이 그분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세상의 끝으로 부터 끝까지 지금 반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122개 국의 국가수반이 바하올라의 선언문의 특별판을 전달받았고, 사본들이 수권의 관리 및 지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국제 연합에 의해서 1968년 인권의 해로 지정됨을 계기로, 전세계의 바하이 공동체들은 바하이 국제 사회와 국제 연합과의 사이의 유대를 강화 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신앙과 신앙이 치유하는 멧세지를 선포 했습니다. 이 나라 저나라에서 현대 매스콤 매개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의 대업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이 부름의 크기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커가야 하는바, 9개년 계획이 완수되고 그 이상 발전할 때까지 사회 각층을 침투하여야 합니다. 이 중요한 과업 및 9개년 계획의 모든 목표의 증진을 위한 원조 및 촉진 제로서, 1970년 8월부터 1971년 9월 까지 다음과 같이 대양 및 대륙대회를 연거퍼 개최할것을 공고 합니다.

1970년 8월에, 볼리비아의 라파스에서 그리고 모리타스의 로스힐에서 1971년 정월에, 리베리아의 몬로비아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1971년 5월에 피지의 수반에서 그리고 차마이카의 킹스턴에서 1971년 9월에 일본의 삿포로에서 그리고 아이슬랜드의 레이크자빅에서 9개년 계획의 발전을 검토해 보면, 국가본부, 사원을 위한 터 및 교도원의 확보에서, 그리고 바하이 문헌의 더 많은 언어의 번역에서, 또 지방 또는 전국 정신회의 법인등기 수행에서 위대한 진전이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파나마 사원의 터는 건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건축은 최종계획, 특수조건 및 계약 체결이 승인 되자마자 시작 될것입니다.

이미 시작 되었으며, 만일 가르고 성장시키면 승리적인 성취의 증대한 조류가 될 확장과 공고화의 가속된 발전의 결과로서 1969년 리즈완 기간 동안에 형성된 2개의 국정회를 비롯해서 12개의 새로운 국정회가 설립되었음을 기꺼이 공고 합니다. 1969년 리즈완기간 동안에 설립된 국정회는 부름부라에 자리잡은 브룬디 및 루완다 바하이 국정회, 그리고 렌에 자리잡은 파투아 및 뉴기니아 바하이 국정회 입니다. 1970년 리즈완 기간 동안에는 10개의 국정회가 설립될 것이며, 아프리카 구미는 6개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콩고 공화국 국정회, 가나 국정회, 다음에 토-고, 및 나이지 국정회, 말레이 국정회, 볼소와나 국정회 및 플류칼영 기니아, 케이프 및 베르데 군도 국정회 등이고, 미주 대륙에는 기니아나스 국정회 하나이고, 아시아에도 하나인데 근동 바하이 국정회이며, 오스트렐리아 대륙에는 두개인데 통가 및 쿡군도 국정회 및 사모아 국정회 등입니다. 그리하여 1970년 리즈완에는 전 국정회의 수효는 93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대업의 세계적인 성장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 신앙의 세계 본부도 또한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수호자의 말씀대로 순례자들이 이 세계 본부의 생명의 피이니, 성지 순례의 은혜를 순례의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배필 수 있기가 우리의 오랜 희망이요,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순례의 문을 개방할 수 있음을 발견함이 커다란 기쁨입니다. 금년 8월부터 시작하여 초청될 교우 단체의 수효가 4배로 증가될 것이며, 이 단체들의 수효도 늘 것이여서, 현재의 6배에 가까운 순례자들이 해마다 신앙의 중심 인물의 사원에서 기도할 기회와, 「바하올라」와 「엠펙 바하」의 발자욱과, 고통과 승리로 거룩하게된 곳들을 방문할 기회와, 우리의 경배하는 수호자에 의한 자애로 아름다워진 이들 성역의 교요함 속에서 명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증가된 순례자의 흐름은, 오년 동안의 고된 근로 뒤에 탁월한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구개년 계획의 제 4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 바하이 공동체의 정신적 발전을 빛 낼 것입니다.

9개년 계획의 현단계에 있어서, 커다랗고 가장 긴박한 필요성은 신도 수요의 빠른 증가요, 계획이 요청하는 기초가 튼튼한 지정회의 형성 및 다른 지역들의 개방에 있어서의 진진입니다.

현대의 일류의 처리가 제기하는 지대한 기회에 답하는 이 세계적인 활동은, 구개년 계획의 제 4국면의 특징이요, 계속적인 선포에 의하여 강력히 공고화 될 것이며, 나머지 국정회들을 세우는 근본적 기초가 될 터이며, 국제적 여행 교도 및 정신회간에 협력의 혜택들을 점차로 입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교우들이 우리 신앙의 기금을 지지하여 헌신적으로 헌금 할 것과, 힘센 개척자의 메를 기르는 것이 필요 합니다.

9개년 계획의 둘째 해에 바하이 세계는 505명의 지구위의 안 열린, 또는 미약한 영토위에 정착하기 위하여 일어남으로써, 가장 위대한 근대화된 개척 공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지대한 공적은 이제 더욱 더 향상 되어야 합니다.

733명의 신도들이 집을 떠나서 개척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아직 문이 닫혀 신앙이 못 들어간 지구상의 여러 영토에 정착하기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들 헌신적인 개척신도들이 지체 없이 일어나서 9개년 계획의 제 4국면의 해에 184개의 특정 영토에 정착 할 것이 필요 합니다. 즉 아프리카에 48개 영토, 아메리카 대륙에 40개 영토, 아시아에 40개 영토, 오스트렐리아에 18개 영토, 그리고 유-럽에 38개의 영토들이 있습니다. 개척자들을 마련할 능력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의 바하이 공동체들에게 기초적 책임을 주었지만, 모든 바하이들이 마음속에서 자기도 이 부름에 호응하여 스스로 가든지 또는 「바하올라」의 가르침을 좇아 가기를 대신 해서 갈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매리로 보내든지 하여야 합니다 바하이 개척자들의 활동을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수행함을 달성하기 위하여→

◇◇ 국내 소식 ◇◇

제 6차 전국대회 개최

예정대로 1969년 4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과 참관자들이 모인 가운데 앞날의 한국 바하이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듭했다. 그 중 행사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6차 전국정신회 구성

서 병인(의장), 김 영연(부의장), 잔에스펙헨리(서기), 대일 앵거(재무), 이 재락, 김 명정, 윤 도림, 에리자 베스펙헨리씨등이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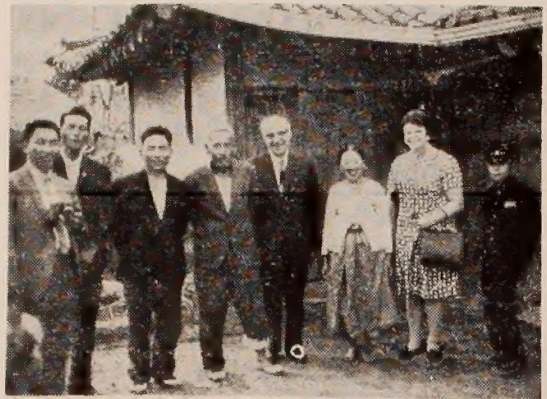
〈결의 내용〉

1. 바하이 되찾기 운동
2. 지방 바하이센터의 건립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3. 사원대지 구입 촉진을 전개한다.

“마다해디부처 한국 방문”

유엔 주재 바하이단원의 대표이며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마다해디 여사는 부군과 함께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세계 일주중, 지난 4월 8일 4일간 한국을 방문하고 서울바하이들을 코리아 하우스에 초청하여 우애를 깊게 하였고 안 잉등지

의 바하이들을 찾아 보기도한 바쁜 일정 속에 텔레비존에 출연등, 한국 방문의 짧은 일정을 못내 아쉬워 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마다해디부 처와 안양지구 교우들〉

“멕헨리 3세 한국에 돌아오다.”

한국 바하이는 누구나 낮익은 잔 멕헨리 3세 (즉 멕헨리 대령의 아들)이 5월 28일에 부인인 옥순멕헨리 여사와 두 자녀를 데리고 미8군에 부임하기 위하여 김포 공항에 내렸다.

“81개 지방정신회 구성 완료”

리즈완 기간에(4월 21일) 실시한 전국 바하이

→세부적인 계획 사항이 국성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천애하는 교우들이여, 9개년 계획은 잘진척 되가고 있고, 우리의 일은 「바하올라」의 그칠줄 모르는 확신에 의하여 축복을 받으며, 온 바하이 세상은 완전한 성공의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이제 회미하게 멀리 지평선 위로 아른거리는 저 행복한 완성은, 부지런한 일, 실질적인 계획, 헌신적인 행동, 교도 사업의 적극화는 무엇보다도 모든 바하이가 제 각기, 「바하올라」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셨고 「엠펙 바하」께서 구현하신 저 영광스런 말씀에 자기의 영혼을 발전 시키고 항상 노력함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구현자 이신 「엠펙 바하」의 거룩한 본 보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분의 생활과 행동이 판에

박은 외적인 움직임에 따라 행하여 지지 않았고 그 분의 내적 자신의 당연하고 자발적인 표현이 있음을 입증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자신의 내적 정신으로서 그 분의 정신적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가르침의 수행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자라고 성숙하므로써,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실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목적의 수행을 증진시킬 것이며, 이것이 그분 신앙의 승리를 보장 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대업의 동태를 장엄한 계기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할 터인데, 이 장엄한 계기의 힘이야말로 최대수의 공동체를 1973년에는 영광의 승리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대 평화의 상상 못할 전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9명이상 거주하는 방방곡곡에서 지방정신회 위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국정회에서는 한 원을 선출했고 현재(6월 5일)까지 국정회에 보고

〈전국에서 선출된 지방정신회 명단〉

1969년 4월 21일구성

등록번호	도별	주소	신도수	서기	의장	서신발신자
서울 및 경기도						
19	1	경기도 안양읍 이동리 3구갈산	12	이 병옥	강 윤희	봉 유선
81	2	서울 특별시	122	김 완식	김 영연	
충 청 도						
12	1	충남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15	진 종면	김 금식	
21	2	" 논산군 부적면 덕평리	11	김 영태	김 탁현	오 현근
24	3	" " 상월면 상도리	9	박 찬수	김 동길	
69	4	"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8	박 장현	박 중윤	임 현오
60	4	" 대전시	12	박 현수	윤 도림	
20	1	충북 영동군 양강면 목정리 마포리	9	권 태종	양 창식	
전라남북도						
전 남						
4	2	목포시	18	김 정희	김 검영	김 창호
3	2	목포시 충무동 고하도	11	김 미경	김 영진	
5	3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저두	22	박 종도	박 길원	
52	4	" " 동호리	39	신 영남	박 인호	
46	5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9	이 영길	시 동필	
56	6	" 망운면 탄도리	25	김 덕암	김 영복	
70	7	" 무안면 고절1리	27	박 종만	송 기태	
49	8	신안군 지도면 광정리	27	김 동원	김 금성	오 연남
51	9	" 하의면 어은1구	57	정 공환	김 오만	
67	10	" " 오림1리	53	박 산동	김 황면	
55	11	진도군 의심면 신정리	26	차 정치	차 병호	
73	12	" " 사정리	12	박 석규	황 일성	
2	13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40	김 윤재	김 정호	
경 상 남 도						
23	11	부산시	30	박 삼봉	서 병인	
7	2	산청군 산청면 색동	17	하 종순	박 치호	
11	3	" 금서면 매촌리	9	이 덕부	이 상수	
14	4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51	김 일록	정 문갑	
26	5	" " 장기리 원천	25	김 영환	진 이식	
27	6	" " 마상리 상마	44	이 종수	곽 상록	
28	7	남해군 서면 연죽리	24	곽 용완	신 환정	
34	8	의령군 의령면 무전리	18	이 영희	이 상목	

등록번호	도별	주소	신자수	서기	의장	서신발신자
경상북도						
66	1	경주시	21	윤구택	최장원	
39	2	월성군 내남면 배리 1리	9	정훈택	신남택	
9	3	" " " 2리	9	허도행	김정부	
71	4	" " 비지 1리	138	이중해	고덕상	
74	5	" " " 2리	25	박승완	윤상수	
30	6	" " 울동 1리	12	권상태	정광호	
37	7	" " " 2리	9	정무택	김명우	
47	8	" " " 3리	13	천종현	이종직	
10	9	" " " 4리	15	박두천	서선희	
43	10	" " 덕천 1리	12	김인철	문규혁	
45	11	" " " 2리	13	이규백	안용우	
42	12	" " " 3리	9	김태식	김부갑	
22	13	" " 망성 1리	14	이기수	서규화	
72	14	" " 망성 2리	21	권두익	권상태	
65	15	" " 이조 2리	17	최기	최병렬	
75	16	" " 상신 2리	11	주섭정	주홍석	
64	17	" " 안심 1리	15	박인식	김기태	
68	18	" " 방곡 1리	14	이장우	최윤환	
76	19	" " 월산 1리	13	이용원	한진하	
13	20	" 서면 화천리 3리	30	이차우	최현대	
44	21	" " 화천 2리	11	조정대	김동석	
15	22	" " 건천리	9	윤원준	이회섭	
17	23	" " 사라리	9	이용식	박재연	
53	24	" " 심곡리	17	김기주	하상록	
54	25	" " 신평 2리	16	윤만희	윤주상	
25	26	" 양북면 입천 3리	21	우동한	김수락	
61	27	월성군 양북면 입천리	17	이효우	이제현	
41	28	" 천북면 천령리	12	공재봉	공명철	
31	29	" 현곡면 하구 2리	9	서병협	최해도	
62	30	" 안강읍 산대 1리	28	홍준식	이경혁	
18	31	" " " 2리	22	김은환	이완혁	
50	32	" " " 3리	21	이봉태	추수웅	
63	33	" " " 4리	29	이재태	이재락	
16	34	" " " 5리	12	김영수	이정혁	
38	35	" " 근계 2리	12	이진수	이진석	
40	36	" " 강교 1리	18	정우검	권오계	
29	37	" " 옥산 1리	14	이원목	이송덕	
1	38	" " 양월리	9	정기태	권영부	

등록번호	도별	주소	신자수	서기	의장	서신발신자
경북·제속						
32	39	외동면 북토리	12	김선용	김정용	
33	40	외동면 북동리	26	이병태	권태수	
8	41	외동면 제내리	12	임인식	김자용	
36	42	산내면 감산 1리	13	정명계	손영배	
35	43	산내면 감산 2리	9	박인수	박규열	
48	44	산내면 내일 2리	18	이만호	김상진	
57	45	영천군 고경면 청정리	18	황진선	박기복	
58	46	영천군 고경면 칠전리	9	권혁선	김영록	
59	47	영천군 고경면 석계리	17	최상열	신길식	
6	48	영일군 청하면 덕성 2리	40	이원수	심동조	
77	49	지행면 산서 1리	10	김수우	김성우	
78	50	월성군 현곡면 금장 2리	45	박춘발	박석규	
79	51	내남면 안심 2리	10	권삼영	박기용	

국에 168개 지정회 구성 예정지에 지방정신회 구성을 위하여 통고를 낸 바 있다.

“서울 청소년 바하이 आय�회를 갖다”

지난 6월 1일 화창한 초여름 하늘 아래 서울 청소년 바하이들은 आय�회를 비원에서 가졌다. 젊음을 마음껏 즐기며 앞으로의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을 했다고 한다. 미비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좀더 박력있고 원활한 활동을 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엿보였으며 또한 전국 청소년 바하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아래 모든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전국 청소년 바하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한다는 토론을 끝으로 그날의 आय�회를 마쳤다 한다. 청소년 바하이들의 활동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지방 소식”

국정회에 들어온 여러 사연들 중에서 4, 5월에 접어들어 회관문제를 자체내에서 해결할 움직임이 이곳 저곳에서 비치고 있다. 특히 아래 사항들은 주목 할만한 일이다.

〈월성군 소식〉

1. 월성군 산내면 감산 2리 박규열 바하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16평 짜리 집을 바하이 회관으로 헌납하여 그 지방 바하이들에게 큰 기쁨



〈박규열씨가 회사한 원성군 산내면 감산이리에 새로 마련된 회관〉

을 주었으며, 이 가룩한 뜻을 국정회에서는 감사히 받아 들이기로 했다.

2. 또한 월성군 안강읍 양월리 권영부씨는 그 지방 바하이들이 항상 모임 장소로 곤란을 겪는 것을 보고 자기가 기거하던 방을 앞으로 그곳 회관이 마련 될때까지 바하이 형제들의 교리 연구 및 축제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

3. 지난 해의 흉작으로 기금 운동이 중지 되었던 월성 지역에서는 금년 보리 농사의 풍작을 예상, 새로운 기금 운동이 활발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4. 현재 다음 마을에서도 바하이회관을 자체

◇◇ 해 의 소 식 ◇◇

※ 핀란드

「핀란드」의 전국 정신회는 금년도 하기학교를 「모텔 하마라」 템페레에서 6월 27일에서 7월 2일까지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 스위스

「스위스」의 샤후자 2세 황제는 독립기념식상에서 국민의 단일성의 요청 된다고 말했는데 특히 통일된 종교의 필요성에 관해서 언급했다. 황제는 또한 그들 왕의 양어께에 달려있는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도 설명한 후 지상에 존재하는 신의 수호자들에 관해서도 말했다. 스위스의 바하이들은 황제의 말이 세계 전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자 「바하올라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 인 도

「바하이」가 있는 인도 전 지역으로부터 「캄푸아」지역에 있는 마을들로서 신의 정당함을 받아 들인 첫번째 마을은 「구라이 안푸와」라는 마을이다. 「캄푸아」지역 「바하이」들은 12월 초에 지방 「바하이」들에 의해 마련된 1일 회의에 참석했다 그 회의는 몇명의 「바하이」 지도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지난 11월부터 그 지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해온 바하이 「V. P. 샨마」씨는 그 지방

사람들을 전부 바하이로 등록하게 했으며 「구라이 안푸와」마을의 바하이들에게 그 지방에 「바하이 센터」를 마련 해 주기 위하여 건축중에 있는 그의 새 빌딩을 제공했다.

「캄푸아」지역에서는 「우타푸라테시」의 총독 「캄푸아」시장과 주지사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3명의 실업자중 한명에게 「바하올라의 선언」이 소개 되었다. 11월과 12월에는 각종 지방 신문들이 무려 41번이나 「바하이」신앙에 대하여 게재 하였다.

※ 타일랜드

타일랜드의 국민의회는 각 도서관에 배부할 「바하올라와 뉴에라」에 관한 약 400장의 편지의 사본을 만들어 냈다.

※ 푸엘토 리코

바하이의 성실한 일꾼이며 헌신적인 지도자 「고든·톰 버크」와 부인 「엘리스」는 바하올라에 대하여 좀 더 배우려고 하는 열광적인 수 많은 젊은 「바하이」들에게 그들의 집을 「바하이 센터」로 제공했다.

※ 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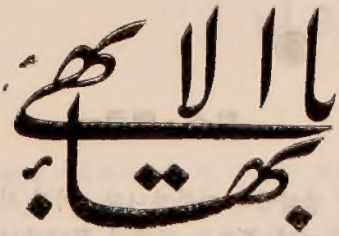
바하올라의 은총을 입어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새로 가입한 신자가 무려 1000명이나 되어 점차적인 「바하이」신앙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 청소년 소식”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리 신 영남군과 그의 동료들은 군배를 자진 순회하면서 바하이 교도를 계속하고 있어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에 입신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한다.

-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 충청남도 대덕군 현곡면 평촌리
-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금장 2리



바하이 청소년

(BAHA-I YOUH)

■ 새로운 생활 ■

제 2 절 기도의 필요성

신성(神性)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들은 조만간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은 찾을 수 없으므로 당황하게 되고 급기야는 현재 기존하는 도덕내지 정신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물질적 힘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종교는 이를 개선하고 변모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하느님과의 혼합일치를 이룰 수 있는 신비의 감정을 종교가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느님과의 영적인 대화는 오직 명상과 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바하올라는 신앙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 하셨던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신교를 따르고 여러 일을 주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 질 수 있는 신성을 배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신자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는 진실로 우리의 정신발전에 필요한 것이며 진정한 종교의 초석(礎石)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 3 절 바하이 율법들

기도와 단식

필수기도와 더불어 단식은 하느님의 율법을 지지 보강해주는 두개의 기둥입니다. 기도와 단식을 통해 우리의 청신은 발전되어지며, 깨끗히 정화되어 집니다. 그럼으로 해서 삶의 의의를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단식은 우리의 정신적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명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이 기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적정신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재조정하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 힘을 북돋아 주고 보살

피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하이 공동체)

「결 혼」

바하이 결혼은 두사람 즉 남자와 여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모든 하느님의 세계에서 신성한 결혼을 이루려 할때는 영속적 결합, 이상적인 관계, 정신적 육체적인 완전한 사랑과 인생의 계획이 두사람에게 존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합은 모든 존재의 세계, 그리고 하느님의 세계에서 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화합은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바하이의 결혼에는 살아계신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하올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동의는 그 부모가 바하이거나 아니거나 혹은 이혼해서 어려해되었거나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이 위대한 율법을 만드셔서 사회조직을 강화하셨고 가정의 결속을 더욱 밀접하게 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었고, 그들의 영혼이 창조주를 향하여 영원한 여행을 하게한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와 존경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바하이 결혼을 거행함에 있어 지방정신회의장과 서기는 대표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예식은 가능한 한 간소하게 진행하며 바하올라께서 정하신 어귀(우리는 진실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를 사용할 것이며 원한다면 성스러운 발해문과 기도문을 낭독할 수도 있습니다. 구식의 의식과 바하올라에 의한 간단한 의식을 혼합해서는 안됩니다.

— 끝 —

× × ×

“전국 청소년 바하이들에게 드리는 말씀”

전국 바하이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현 건국의 청소년 바하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하여 새로운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오니 각자 신속한 기일안에 서울 바하이 센터(중앙우체국 사서함 991)로 보내 주시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 바 압 의 순 교 ◎

—찰스·팅크—

바압의 순교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참으로 흔치않는 사건들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척도를 재는 시험(試驗)일 수도 있습니다. 바하이들은 기적(奇蹟)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치 않으므로 바압이 그렇게 숭고한 희생을 당할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곧 바압이 하느님의 계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들이라고 받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압이 하느님의 전달자임은 그가 밝힌 진리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영원한 효과로써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바압의 순교의 중요성은 곧 그가 바하올라가 새로이 오심을 마련키 위하여 그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점 이외에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압은 자기의 순교전에 그의 필구(筆具)와 인장과 반지를 생명의 문자(바압의 제자)들 중 한사람에 주어서 바하올라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이와같이 그는 바하올라가 하느님이 계시코자 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도였던 삼칸(Sám Káhn)은 하느님의 교를 지상에 이룬 그를(바압)죽이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압은 삼칸이 그의 의무를 다하며 충실한다면 하느님은 그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실거라고 삼칸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다음날 군인들이 바압을 처형하려고 끌어냈을때 바압은 군인들에게 내가 나의 비서와 나의 이야기를 끝낼 때 까지는 어떤 세속의 힘도 나를 해치지 못할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같은 모든 일들은 마치 예언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압의 필구로 전교한 바하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로 계속하여 쓰셨으며, 삼칸은 그의 손으로 바압을 죽이지 않았으며, 그리고 바압은 그가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비서에게 돌아와 그의 이야기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바압과 미르자 모하메드 아리(Mirzá Mohammad Ali)가 바락 벽에 끈으로 묶이우고 총을 그들에게 쏘았을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들을 묶었던 줄만 잘리었을 따름입니다. 어떤 탄환 한알도 바압과 그의 동료들 마추지 못했습니다. 발포시의 연기와 혼잡한 틈을 타서 바압은 그의 거소로 돌아와 그의 비서와 이야기를 계속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야 군대들이 그를 다시 찾아 처형장으로 데려 갔습니다. 그러나 삼칸은 일개 분대가 총을 쏘아도 조금도 다치지 않고 바압이 무사했음을 보고 다시 바압에게 총을 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분대가 처형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750발의 총을 쏘았으며 바압은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느님으로 부터 왔다고 믿는 예언자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일까요?

그로부터 수십년후 그리고 지금부터 십년이 조금되기 전에 한 페르샤학자가 연구차 어떤 영국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그 학자는 박물관의 방문자들에게 보통 공개되지 않는 편지를 볼수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 편지 가운데 이란에 주재 하였던 어떤 영국관리가 영국에 있는 그의 친구에게 쓴 편지한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사람은 바압이 누구인줄도 모르고 또 그가 바비(바압을 믿는사람)도 물론 아니었을것입니다. 다만 바압을 처형하기 위한 맨처음 총쏘는 광경과 바압의 마지막 처형에 대하여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에 있는 그의 친구에게 그 사건들을 간략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한바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하이 역사상 그 무렵의 사실(事實)에 대하여 조금도 왜곡(歪曲)되지 않는 보고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 × ×
우리나라에서 정들었던 찰스·팅크씨가 하와이로 가신 뒤 그분의 최근 소식은 하이파에서 인도 및 동남아 각국을 순회 교도하면서 정착지인 일본 도쿠시마로 가실 예정입니다.

◇◇ 나의 바하이 생활관 ◇◇

김 완 식

필자가 "바하이"란 세 글자를 하나의 이색적인 신앙의 명칭으로 처음 들었을 때는 바하이 신앙이 호남의 수도 광주에서 지역적으로 번창하던 1959년이였다. 당시 필자는 중학교를 갓 나온 고교 신입생으로서 별로 철이 아직 없었을 때며 특히 종교가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조차도 못하던 때였다.

우연한 어느날 선배의 안내로 하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호기심을 가지고, 바하이 회관을 찾았었다. 그때 필자는 교리의 설명보다는 교회와 거기에 모인 신자들과 그들이 가지는 종교적 의식에서 풍겨주는 어떤 엄숙한 분위기를 경험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때 내가 본 바하이교의 첫 인상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면을 엿볼수 있었지만 반면에 친근감을 주었었다. 처음 "바하이 세계 신앙"이란 이름아래 교리설명을 들었을때 그 교리를 타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전문이 부족했지만, 바하이 신앙의 핵심을 나타내는 바하이 12원칙의 주요 골자는 나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그 교리가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나를 비판하기 전에, 현대인의 사상과 생활에 부합할수 있는 시대적 진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때부터 필자 자신은 바하이교에 집착하고 싶어졌다.

그 뒤 바하이로 정식 등록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빨리 바하이 신자가 됐다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다고만 느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자신을 바하이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그로 인한 수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몇년전 일이지만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미

국 바하이 사원을 보고와서 모 잡지에 발표한 바와 같이 바하이를 겉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바하이 신앙은 종종 종교라기 보다는, 하나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했다. 그러나 바하올라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멧세지는 너무도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된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터득하기에 자기 자신이 너무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된 뒤에 자신이 바하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것은 또한 참다운 바하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란 너무도 어렵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태어날때 음과양의 두가지 속성 즉 모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생각임에 틀림없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바하이에게 귀의 할것을 작성할 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이유도 있지만, 한국에 나와 헌신하고 있던 몇명의 외국인 바하이의 모범적인 바하이 생활은, 그에 못지않은 영감을 주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 바하이들은 자기 개인의 정신기발전을 위해서나, 한국에 있어서의 외기 발진을 위해서는, 모범적인 바하이 생활로서 바하이교의 특성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것이 크게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이 모범적인 바하이 생활이 발휘하는 정신기감화력은, 세계 평화를 이상(理想)으로 하는 세계 통합을 위한 기본 문제인 개인의 건국을 달성하는 촉매작용을 한다고 할때, 바하이 즉 한국 바하이가 지켜야할 첫째 의무는 바로 이 모범적 바하이 생활인 것이다.

— 끝 —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월보위원회에서는 새로이 퀴즈난을 설정하였습니다. 해답을 관제엽서에 적어 서울중앙사서함 991호로 보내 주시면 정답중, 추천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내 실때는 엽서에 주소를 꼭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제

1. 바하이들에게 직업적인 목사나 신부 즉 사제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없다면 어떻

게 교도를 할 수 있을까요?

2. 바하올라가 나신곳은 어디며 나신 곳은 성경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 바하이교의 총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4. 바하올라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5. 지방성신회는 언제 구성합니까?

※ 각번호에 해당하는 답만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바하올라의 선언문 ☐☐

인류에게 주는 대선언

땅위의 모든 백성과 족속들에게 미리 징해진 때가 이제 도래하여 성전에 기록된 하느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도다. 「시온」에서 하느님의 율법이 나왔으며, 「예루살렘」에 그 언덕과 그 경이 있는 하느님의 계시의 영광으로 가득차있나니, 위난에서 도와 주시고 자존하시는 하느님의 책에 계시된 것을 가슴속 깊이 숙고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오!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너희의 귀를 그분의 말씀에 기울여,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로 너희가 끊임없는 수정수(水晶水)에서 너희들 몫을 마시고 하느님의 대업을 받들때 있어서 태산과 같이 확고부동 하여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지금 이 인류가 약속된 분의 얼굴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니, 하느님이 부르심이 울리었고 하느님의 얼굴 빛이 인간들 위에 현시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가슴에 새겨진 헛된 생각의 자취를 없애고, 개방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분의 계시의 징표(徵標)에서 그분의 사명의 증거와 영광의 표식(標識)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이 날은 짐으로 위대하도다! 모든 생사가 이 날을 하느님의 날이라고 함꼐 보아야 그 위대함을 알 수 있으리라. 하느님의 모든 예언자와 모든 사자들이 경이에 찬 이 날을 목마르게 기다렸으며 지상의 모든 인간이 또한 미산가지로 이날을 그리었느니라. 그러나 하느님의 계시의 태양이 그분의 의지의 하늘에 솟아 오르자 전승하신 그분이 식태하신 자들 이외의 모든세상 사업들이 너무 냉랭하여 말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느니라.

오! 나를 생각하는 너희들아! 가장 슬픈 장막이 지상의 사람들을 하느님의 영광으로 부러가단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느님께서 통일(統一)의 빛으로 하여금 기구를 둘러싸게 하시고 “왕국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표

지가 모든 인간의 이마에 찍히게 하실진저. 오! 너희 어린사람들아! 하느님의 신앙과 그분의 종교를 소생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류의 복리를 도모하고 그 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우의의 정신을 진작시킴에 있나니, 그것을 불화와 증오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정도요 확고부동한 기반이니, 이 기반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의 변동이나 우연한 일로서는 그 힘을 얻게하지 못하며 무수한 세기가 지나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세계의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일어서, 이 시대의 개혁과 이 시대의 부흥을 이룩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니, 그 필요성을 심사숙고한 뒤에 서로 모여 협의하고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병들고 괴로워하는 세계에 필요한 약을 주도록 하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용을 지켜야 하나니, 무엇이든 중용의 한계선을 넘을때 유익한 영향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유나 문화에 대하여 감시 생각해보라. 이개혁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호의로 생각하더라도, 만일 자유나 문화등이 지나치게 랜사되면 인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니라……그 통치자들과 인민들 가운데 지체롭고 학식있는 자들이 고귀한 노력이 있어, 세계의 백성들이 그들의 최상의 복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원하노라. 언제까지 인류가 그 번덕스러움을 고집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의가 지속할 것인가? 언제까지 혼돈과 혼란이 인류를 지배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화가 인간사회를 어지럽힐 것인가? 길땅의 폭풍이 광방에서 휘몰아치며, 인류를 분열시키고 괴롭히는 분쟁이 날로 심해지 그 오늘의 질서가 슬프게도 결합에 차 있어, 임박한 격동과 혼란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도다. 하느님께 영광이 있을 진저. 하느님께서 지상의 백성들을 친밀히 일깨우시와, 그들의 행실의 결과로 그들에게 이익이 오게 하시고 그들의 지위에 맞는 일을 선취하도록 도우시기를 나는 간원하노라.

오! 서로 다투는 지상의 국민과 족속들아! 너희들의 얼굴을 통합으로 향하여, 통합의 빛이 그 광채를 너희 위에 비추도록 하여라. 너희는 서로 모여, 하느님을 위하여 너희들 사이의 분쟁의 원인을 근절하도록 결의하여라.

〈다음호에 계속〉

◇◇ “고국에 계신 서울 바하이 여러분에게” ◇◇

떠나올때 일일이 뵙지 못하고, 이렇게 먼 이
국땅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드림을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다행이도 여러분께서 것처럼 저를 영
려해 주시고 많은 충고를 주셨기에, 이곳 미국
에 무사히 도착 했으며 지금도 별로 불편을 모
르고 잘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먼 이국 땅에
오게 되니 새삼 고국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리
움 다정스러웠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요즘은
그곳 서울 바하이 성업이 잘 진척 되오며 어러
분들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아래 모두 안녕들 하
시옵지요? 시의 몸은 비록 멀리 떠나 왔사오
나, 마음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고
국과 여러분을 위해서 지는 하느님께 기원
하고 있습니다. 지는 이곳에 도착하고나서 무
엇보다도 이곳 바하이 센터를 찾고자 애를 썼읍
니다. 3주일 동안 이곳 바하이 센터에 전화를 걸
어도 사람이 없어 바하이 센터를 찾지 못하던중
6월 1일 일요일에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일요일
모임이 있어 동회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의 이야

기를 했더니, 이곳 바하이들은 그곳에서 수십리
나 떨어져 있는 저를 데리러 왔읍니다. 어찌나
친절히 대해 주시는지 눈물이 날뻔했읍니다.
그분들과 인사를 할때 서로 얼싸 안고 인사를
했읍니다. 생전 처음 뵙는 분들이 마치 나의 가
족같은 생각이 드니, 이것은 우리 바하이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 했읍니다
이곳 바하이들은 약 300명 정도이며, 미국을 위
주로 예시, 영구, 인도, 멕시코, 필리핀, 인도
등 다채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었읍니다. 이곳 비
하이 활동을 대단히 활발하며 다음 주일날은 먼
곳으로 피크닉을 간다고 지도 꼭 참석하라는 부
탁을 받고 가기로 했읍니다. 앞으로 좀더 이
곳 바하이들과 친숙해지고 이곳 사정을 잘알
게 될때 여러분에게 종종 안부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이만 주리웁고, 부디 여러분께서 안녕
하시기를 하느님께 기도 드립니다.

볼티모어에서

김 규 환 올림

◇◇ 한국 바하이 전국 정신회 공문 ◇◇

1969. 6. 11

수신: 전국 바하이 지방 정신회, 공동체

제목: 농번기의 바하이 생활

알라호 애포하!

귀하들의 노력과 참된 바하이 생활로 여러분
의 마을에 사랑의 빛이 밝혀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요즘은 씨를 뿌리는 계절, 대단히 바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정신적인 자세를 확고히
하시기 위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바하이 생활을
하시는데 유의 하시기 바라나이다.

— 기 —

1. 바하이 각사는 다른 모임에는 물론 19일
축제에는 꼭 모여서 같이 즐겁게 지내도록 하시
고, 그 결과를 먼저 보고서에 적셔야 시

제임하에 부쳐 주실것.

2. 바하이 서로가 협조하시고 힘을 합쳐서 비
하이가 아닌 사람에게 까지도 농번기의 바쁜 일
정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각자 바하이들은 꼭 필수 기도는 하나 이상 하
실것.

4. 매월 1회 이상은 지방 정신회 모임을 갖고
귀 마을 전반에 걸쳐서 의논 하심으로써 밝은
생활이 이룩 될 것을 확신 합니다.

유첨: 축세 보고서 양식

서기·김영근

※주의: 이 공문은 서면으로 각 지성회 및 경
농세에 발송 되었음.

— 서적 안내 —

“바하이 기도문”(신판 86페이지 가격, 50원)
바하이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필수적인 책입니다. 비압, 바아올라, 앰돌바하의 주옥같은 기도 43개를 수록한 수줍만한 크기의 예쁜 책입니다.

모든 바하이에게 꼭 갖길 수 있도록 국정회에 시 30원을 부담 하므로 나머지 20원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숨겨진 말씀”(86페이지 가격, 50원) 바하올라의 윤리적 저서중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일컬어 신 153편의 주옥같은 기를 모아온 책입니다.

—이상의 두 책을 인은나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기위하여 비니론 표지를 만들어 실가 20원에 희망자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

“바하올라와 신시대”(392페이지 가격, 150원)
바하이교의 역사, 원칙, 율법, 계율, 성약 및 기타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한 책으로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지중에서는 가장 상세한 책입니다.

“새 동산”(198페이지 가격, 150원) 하느님과 그의 종교를 순서적으로 설명하고 하느님의 현시자들 크리슈나 석가모니 모세 예수 그리스도 모하멜 · 바압 · 바하올라는 물론 성약의 중심인 앰돌바하 수호자이신 쇼기 에펜디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고 바하이교의 가르침과 원칙 · 행정 · 율법과 의무등 바하이들로서는 꼭 필수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농촌 지방의 바하이들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누구나 친근하게 읽을 수 있을

니다.

“바하이 세계 신교의 입문”(50페이지 가격 50원) 바하이교리 기초지식을 10과목으로 나눠서 서술한 것으로 종전의(10과 연구 과정)을 수정, 증보한 것입니다.

바하이의 기초지식을 확실히 하는데 좋은 반례가 될 것이며 바하이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도 소개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책입니다.

“바하이 행정 실무”(27페이지 가격, 50원)

민국 정의원 및 정신회의 구성, 운영, 등과 바하이 행정 기구 전반에 걸쳐서 실무로서 공동체마다 한 부씩은 물론 지교회 역원은 꼭 가져야 할 책입니다.

기타, “세계 신앙을 위한 바하이 가르침”

“사후의 생에 대한 바하이 가르침”

“바하이 생활”

“바하이 결혼”

“바하이 멧세지”등의 소책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적을 주문 할때는 책 이름과 권수를 정확히 밝히시고 서울 중앙 사서함 991호, 한국 바하이 출판 위원회로 주문 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진체구좌 서울 중앙 741호로 송금 하시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책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 바하올라의 “숨겨진 말씀”에서 ◇◇

1. 오, 정신의 아들이!

나의 첫째 가르침이니 듣거라, 순결하고 친절 하며 빛나는 마음을 지니어라. 그래야 영속하고 불멸하는 옛 주권이 네 것이 될수 있느니라.

2. 오, 정신의 아들이!

내 눈 앞 모든 것 중 가장 으뜸으로 사랑받는 것

은 정의이니, 나를 바라거든 정의를 외면하지 말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이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정의의 도움으로 너는 남의 눈으로 말고 네 눈으로 보게 된 것이며, 이웃 사람 지식으로 말고 너의 지식으로 알게 되리라. 네가 어떻게 하여야 마땅한지 가슴 깊이 숙고하여라. 참으로 정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며 네 자애의 표시이니라. 그러니 이를 네 눈 앞에

두어라.

3. 오, 사람의 아들이!

잊히도록 오래된 내 존재와 내 본질의 옛 영
원 속에 감싸인 채,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
을 알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하여, 비위
에 나의 모습을 새기고 너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제시하였노라.

4. 오,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의 창조를 사랑하였기에 내 너를 창조
하였노라.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하여, 내가 너
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영혼을 삶의 정신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라.

5. 오, 존재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사랑이
너에게 이르는 방도가 전혀 없느니라, 오, 종아
이를 알아 두어라.

6. 오, 존재의 아들이!

너의 나원은 나의 사랑이며 네 하늘의 집은
나와 개회함이니라. 서슴치 말고 그 안에 들어
가거라. 나의 빛 왕국과 나의 높은 영토에 너를
위하여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편집 후기

월보를 애독하시는 전국 바하이 여러분에게,
지난 5월호를 보내드리지 못한 것을 본 월보위
원회서는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득이 5, 6월호 합병을 내게 되었아오
니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 더많은
아낌과 성원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월보를 전국바하이 모두를 위한 대화의 광
장으로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서 월보를 보신 소감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글,
그리고 여러분의 지방에 대한 소식 및 활동등,
또한 전국바하이나 각 공동체에 알려고 싶으
신 사연등, 여러면의 의견을 보내주셨으면 감
사하겠습니다. 월보는 분명, 전국에 계신 모든
바하이를 위한 것이오니 많은 참여와 지도 편
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월보위원회 드림.

▲ 바하이 메모 ▲

축	제	일: 장엄의 달 5월 17일	
		광명의 달 6월 5일	언사의 달 7월 13일
		자비의 달 6월 24일	
성	일:	레주완 축제 제 12일 (바하올라의 선언일),	바압의 순교
		바압의 선언 (앰들바하의 탄생).	(1850년 정오)
		※ 주: 1844년 5월 22일 일몰후 2시간만에 있었음.	7월 9일
		5월 29일 바하올라의 승천(1892년 이날 오전 3시)	

월보 위원: 노영호
한정석
김완식
김영연
바바라앵거
박문자

바하이 월보 (비매품)
1969년 5월 30일 인쇄 바하이용
1969년 6월 2일 발행
발행자 재단법인한국바하이전국정신회
서울용산구후암동249-36(전화 (8) 1947)
편집자 바하이월보위원회
인쇄자 신우사 (52-3342)

11,000 rough estimate
360

1921 founded in Korea by Miss Agnes Alexander, from Hawaii, for one month. Jap. danger.
1950, during Korea War, refused: William Maxwell from U.S., as serviceman.
-51 William Smith Medical Corps. Stayed:
John McHenry Korea Chollan-do Univ. - Korea For. Lang. College

Reg. meeting every 14 days fest. - 45 to 50.

Co

Yang Chae-Ho - Korean Board Member, Board of
Councillors for North-East Asia

KOREAN BAHAI NEWS

Asst. Prof.
Yusan Univ.

Summary of contents of this issue: — Summary of this issue; (No. 58)

Page I: Photograph of the 6th National Convention held April 27-28.

Page 2-4: Message of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to the Baha'is of the world, Ridyan, 126,

Page 4-5: Domestic news of Korea. Election of the National Spiritual Assembly: Kim Yong-yun, John S. McHenry, Pak Sam-bong, {Suh Byong-in,} Yun Do-lim, Elizabeth McHenry, Kim Myung-jung, Lee Jae-rak, Dale A, Enger, The Convention consulted on a consolidation of national Baha'i community, construction of local Baha'i centers' and procurement of the Temple site. The National secretary reported that 81 Local Spiritual Assemblies were formed on April 21st. The visit of Mr. and Mrs. Motahedeh to Korea was reports, as was the recent return to Korea of John and OK-sun McHenry.

Page 5-7: A list of the Local Assemblies formed and the names of their members.

Page 7: News from various communities: Youth activities in Seoul: the youth in Seoul had a picnic as part of a continuing teaching campaign. Their goal is to expand the teaching program to reach more and more youth.

A provincial youth committee was formed in Chun-nam province as a result of increased youth activity in that area.

Baha'i centers: a very encouraging trend is for more and more communities to make concrete steps towards obtaining centers. A Bhai PakK yu-yul, donated a building for a center in wolsong-kun: other communities that plan to build their own centers are Kun-san and Dae-dok-gun in Chun-nam province.

Page 8: a summary of International news from various newsletters received in Korea. including Finland, Switzerland, India, Thailand, Puerto Rico, and Viet-nam.

Page 9: Baha'i Youth Column: a translation of selections from the Baha'i writings on the subject of the necessity for prayer.

Page 10: A translation of an article on the Martyrdom of the Bab, by Charles Duncan, which includes a note of information concerning Mr. Duncans recent travels.

Page 11: Believers column: This issue has an essay entitled "My view of Baha'i Life," by Kim Wan-sik, which emphasizes "living the life" as the best way to teach.

Page 12: Baha'i quiz: to alert believers to the basic facts of the Faith.

Page 13-15: Various communications, including letters, instructions, and information One letters of from a full-time teacher, Yun Man-sik, encouraging all Baha'is to participate in finding a Temple Site, one of Korea's Nine-Year goals. Another letter of interest is from a Korean Baha'i, Kim Kyu-hwan, who has recently gone to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Spiritual Assembly provides instructions to the believers on how to conduct Baha'i activities, part of the campaign to achieve universal participation. Finally, there is a list of Baha'i books available in Korea. and a reminder of coming Baha'i events and Hold Days.

BAHAISM

Presbyterian Mission
Int. P.O. Box 1125
Seoul, Korea
July 12, 1969

Dear Dr. Miller:

Excuse me for being so late in this reply to your inquiry on Bahaism in Korea, but I really didn't know where to begin. Bahaism is not very conspicuous here, but I find they claim more followers than I would have thought.

My information is based on a talk with a Mr. Yang Chae-Ho today. He is the Korean Board Member of the Bahai Board of Councillors for North-East Asia, although he made a strong point of asserting that Bahai has no leaders or clergy, and all members are equal. He was converted by servicemen in the US Army during the Korea War, and is now employed by a Pipe-Line Co. under contract to the 8th U.S. Army in Korea. His English is good; his education superficial.

Bahaism was first brought to Korea in 1921 by a Miss Agnes Alexander, from Hawaii. After only one month she was forced to leave due to antagonism on the part of the Japanese authorities.

Bahaism was founded again in Korea in 1950 during the Korea War. Its early leaders were three American servicemen in the Medical Corps: William Maxwell, William Smith and John McHenry. One of them stayed to teach in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A McHenry is still active as lay missionary and organizer. The American personnel involved have all been U.S. Army service-connected. Korean converts appear to be mostly from service-connected Korean civilian or military groups, or from Universities, but they are beginning to proselyte from Christian churches. They claim a membership of 11,000 in 360 centers in Korea, but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actually have more than a third of that on their active list. Attendance this week at their "19th day feast" was only 45 at their Headquarters Center in Seoul, presumably their most active group. I suspect the statistics have been swollen by a special effort to organize 80 new groups in time for their 6th National Convention, Apr. 27-28, 1969. Most of these I suspect will soon disappear. Organization is very casual. The figure of 360 groups includes any unit of more than two as a group, altho for their April campaign the minimum membership was 9 for a group.

This will answer most of your questions, but let me summarize, as you stated them:

1. Number of Bahai: 11,000 claimed. (My guess, 4,000) Cf. with 1,400,000 Presbyterians; 270,000 Methodists; 150,000 Holiness...
2. Class: American-service connected Koreans, students, and now some proselytes from Korean churches.
3. Missionaries: mostly American servicemen.
4. Desire for American connections at first; now, intellectual curiosity, "inter-faith" sympathy, religious doubts about orthodox Christianity.

of the recommendation in
ch of the National Olympic
mittee that Rhodesia be
mitted to compete in the
1972 Munich Olympic games.
Eric Shore, president of the
Rhodesia Amateur Athletics
Union said he refused to com-
ment for fear of jeopardizing
Rhodesia's chances of compet-
ing at the games.

Lead
By Big so

MINSK, Soviet Union (Alec-
ter) — A power-packed United
States swim squad finished the
first day of their three-day
match against Russia and Bri-
tain here Thursday night with
a big lead.

The Americans totalled 119
points with the Soviet Union
second on 73 points and Britain
third with 43.

And just when it seemed
the evening would end with no
world records there came a
magnificent American perfor-
mance in the final event of the
day — the women's tour by
100 meters freestyle relay.

The quartet of Linda John-
son, Teena Dearduff, Shirley
Babashoff and Kim Peyton
clocked 4 minutes 0.7 seconds
to slice 0.1 second from the
world record set by East Ger-
many at last September's Eu-
ropean championships in Barce-
lona.

The 1,200-strong Soviet crowd
cheered the American perfor-
mance loudly.

400 From 12 Countries

KOREA TIMES
Sept. 11, 1971

Baha'i Meet Opens

The three-day International
Baha'i Conference opened yes-
terday at Walker Hill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National
Spiritual Assembly of Baha'i in
Korea.

More than 400 Baha'i believ-
ers from 12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Iran, Italy, Engl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
lia are participating in the con-
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re-
ligion's introduction to Korea.

The participants are to have
discussions on various subjects
related to their religion such
as "Significance of the For-

mative Age," "Universal Par-
ticipation and the Baha'i
Fund," "Role of Baha'i
Youth," etc.

First introduced to the coun-
try in 1921 by Mrs. Agnes Al-
exander from Hawaii, the re-
ligion has now approximately
10,000 believers here. They be-
lieve that the world is one sta-
te and all mankind are one peo-
ple.

The religion, which has no
priesthood but believes in one
God, was initiated by the Ira-
nian Bahauallah in the late 19th
century.